

#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of Reading

이 연 옥 (Yeon-Ok Lee)\*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독서 사교육화의 사회적 부작용                    |
| 2. 독서열풍의 사회적 배경           | 4. 독서의 사교육화에 대한 대응방안                   |
| 1)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의 변화        | 1)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강화                      |
| 2) 언론의 독서에 대한 관심          | 2) 학교교육 및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 개선             |
| 3) 독서관련 시민단체의 성장          | 3)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문헌정보학과의 독서 관련 교육의 강화 |
| 3.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            | 5. 결론                                  |
| 1) 독서관련 사교육업체를 통한 사교육의 확산 |  |
| 2) 독서지도사 양성에 따른 사교육의 확산   |  |

### 초 록

이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독서의 사교육화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독서의 사교육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강화와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 독서운동, 독서교육, 독서의 사교육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of reading appearing in our society recently. Moreover, it searches for what the social side effects caused by the private education of reading is, and for what the social scheme to solve this problem is.

Key Words : reading movement, reading guidance, private education of reading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disfeel@hanmail.net)  
· 접수일 : 2004. 7. 28 · 최초심사일 : 2004. 9. 1 · 최종심사일 : 2004. 9. 8

## 1. 서 론

최근 몇 년간 ‘책과 책읽기’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 방송에서 보여 주었던 책읽기 프로그램<sup>1)</sup>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이후 언론, 시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책읽기운동을 주도하고 있어 책과 책읽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현재,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적의 도서관운동’<sup>2)</sup>, ‘북스타트운동’<sup>3)</sup>을 비롯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sup>4)</sup>, ‘책문화축제’<sup>5)</sup> 등의 다양한 독서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독서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책과 책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설교하였다.<sup>6)</sup> 급기야 정부에서도 ‘전국 지역간 책 선물 릴레이 운동’<sup>7)</sup>이라는 책읽기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서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뜨거우며,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정보화의 열풍에 밀려 ‘책과 책읽기’가 우리 사회의 주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독서열풍에서 책은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 흐름의 중요한 코드이며, 독서는 변함없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책읽기의 열풍은 우리나라의 척박한 독서문화와 환경에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면에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유행보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한편으로 독서와 관련한 부정적 사회현상이 목도되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즉, 현재 불고 있는 독서열풍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챙기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바

- 1) 문화방송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는 전 국민의 독서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된다.
- 2) 이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전개하는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이다. 이 운동의 결과로 현재, 순천, 제천, 진해, 서귀포, 울산, 청주 지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는 성과를 올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된다.
- 3) 현재 북스타트운동은 과학분야의 책의 보급과 읽기를 권장하는 사이언스북스타트운동을 비롯하여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는 유아를 위한 독서운동인 북스타트운동, 부산시에서 추진한 부산북스타트운동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 4) 이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독서운동이다. 2003년 그 출발로 서산시립도서관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산시립도서관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란 창작동화를 대상 도서로 채택하고 기업체와 학교, 직장 단위 독서모임을 조직, 운영하는가 하면 ‘작가 초청 강연회’를 여는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5) 2002년 인천, 창원, 성남을 비롯한 12개 지역에서 지역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렸다.
- 6) 2002년, 2003년 중앙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에서 독서캠페인을 추진하였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된다.
- 7) 이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벌이고 있는 독서운동으로 가정이나 각급 기관 등으로부터 읽지 않는 책 1천여 권을 기증받아 이를 공공도서관에 비치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독서진흥운동이다.

로 그것이다.

독서의 상업화는 특히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육’에서 현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독서학원, 독서교실, 어린이 책대여점 등으로 불려지는 독서관련 사교육업체가 그 중심에 있다. 이들 업체들은 시민의 높아진 독서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그들의 영리를 도모하게 되는데, 현재 이와 같은 독서관련 업체들은 사교육시장의 신생업체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부모들의 자녀독서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독서관련 사교육업체들은 사교육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독서행위란 매우 사적인 행위이지만, 책에 다가가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서교육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공교육의 기본영역이라 할 수 있다. 독서의 가치와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독서를 위한 공적인 장치는 높아진 독서욕구를 해결하기엔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다. 결국 공적영역에서 채우지 못하는 독서욕구를 사적인 영리기관이 대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 ‘독서’마저 사기업체들의 영리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의 상업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독서의 상업화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독서의 상업화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독서교육의 상업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특히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독서열풍에 힘입어 확산된 독서의 상업화, 특히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서열풍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독서열풍이 초래하는 사회적 현상인 독서의 사교육화를 조명함으로써 독서의 상업화가 미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더불어 독서사교육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독서교육이 공공의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해볼 것이다.

## 2. 독서열풍의 사회적 배경

먼저, 이 장에서는 독서열풍이 초래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현재 불고 있는 독서열풍이 왜 일어났는지,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1)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의 변화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한 주요요인으로 먼저,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수능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도입과 제 차 교육과정이라는 새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학교교육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 (1)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수능능력시험의 도입과 논술고사의 시행

먼저, 199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인 수능능력시험이 도입되고 이와 더불어 논술고사가 시행되면서 독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졌다. 수능능력시험은 기존의 대학입시제도가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암기교육만 강요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입시제도로, 교과서 지식의 암기가 아닌 다양한 지식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 수능능력시험의 뼈대인데, 이는 독서와 폭넓은 사고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려는 교육부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입시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방안들이 앞 다퉈 선보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에 보도된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신문에서 제시하는 입시전략 또한 하나같이 ‘폭넓은 독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의 정규적인 학습이외에 독서 등을 통해 폭넓은 지식 습득과 함께 학생들의 자연스런 토론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 체계를 함양하는 학습태도가 필요하다.<sup>8)</sup>

교육전문가들은 언어영역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작품을 달달 외는 것보다는 평소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와 독후감 쓰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지난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7차례 실시한 시험평가에서도 평소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이 언어영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9)</sup>

자료분석능력을 기르고 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키우는 게 중요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해야 한다.<sup>10)</sup>

이와 같이 입시제도에 적응하는 중요한 방법이 ‘풍부한 독서경험’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자, 당시까지 입시준비과정에서 기피되어온 책읽기가 새로운 입시제도의 도입으로 평가절상되었고,

8) “94학년부터 시행 새 입시제도 어떻게 대비할까,” 서울신문(1993. 1. 5)

9) “수능능력시험, 본고사특수/입시용 문학서적 ‘범람,’” 국민일보(1993. 3. 9)

10) “2001년도 입시 준비 어떻게,” 세계일보(2000. 5. 5)

비록 입시를 위한 것이라 할지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만성적인 독서부재의 가장 큰 책임이 대입제도에 있었는데, 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라는 입시제도의 도입이 우리 사회의 독서운동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입시제도의 도입은 입시를 앞둔 중고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에까지 독서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학능력시험은 청소년, 아이, 학부모, 학교교사 할 것 없이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 긍정적 사회적 변화로 평가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대학입시제도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더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새대입제도에는 2007년 고교신입생부터 독서활동을 평가해 학생부에 기록함으로써 이를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입시제도에서는 수능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논술과 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독서를 통해 수준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유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새입시제도는 학생들의 공부 방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학교교육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은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2) 교육과정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새로운 입시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증대하게 된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능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데 치중한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독서활동 및 독서토론의 비중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2000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좋은 책읽기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독서교육을 보다 강조하게 된다. 아래 제시하는 사례도 이러한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시교육청은 신학기 전에 학년별로 수준에 따른 권장도서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학교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독서교육활성화 계획을 짜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올해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좋은 책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양서발굴과 도서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sup>11)</sup>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이 좋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모든 교육 영역에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 인문, 사회, 과학에 걸친 여러 영역을 포함하여

11) “초등생 ‘독서 300권 운동’캠페인,” 국민일보(2000. 2. 7)

학생들의 지식과 정보, 교양을 풍부히 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며 교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은 좋은 책을 읽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교양을 높여야 한다.<sup>12)</sup>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이후 교과관련 좋은 책을 소개하고 관련 책의 독서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는 독서교육활성화를 수립하는 등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경향이 교과서 밖의 출제, 통합교과적 출제, 사고력 평가에 치중, 논술시험, 구술시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자 초등학교에서부터 독서를 통한 지적 체험을 넓히는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한편,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독서의 중요성이 증대하자, 독서는 학교현장뿐 만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주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신문보도이다.

디지털조선일보는 한샘닷컴과 제휴해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관련교육사업에 진출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디지털조선일보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생들의 논술·토론영역이 한층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독서지도와 논술토론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자격을 갖춘 강사 양성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제휴사업은 독서지도사와 논술지도사 자격증 신설, 독서지도사와 논술지도사 자격증 학습을 위한 교재 출간, 독서지도사와 논술지도사 양성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독서지도사와 논술지도사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조선일보는 이번 제휴로 올해 예상 매출액을 2억7000만원, 2004년 5억원, 2005년 10억원으로 잡고 있다.<sup>13)</sup>

위 보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독서’는 돈이 되는 주요한 사업적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수학능력시험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 사회 불고 있는 독서열풍에 착안한 ‘독서를 통한 돈벌기 열풍’은 현재 다양한 사회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독서의 사교육화 문제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이 제7차 교육과정과 수학능력시험의 도입으로 인해 ‘독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할 것 없이 모든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에서도 각광받는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12) 충청남도교육청,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관련 좋은 책 초등학교6학년(2002.12.)

13) “디지털조선, 독서·논술지도사 신설” 머니투데이(2003. 4. 30)

## 2) 언론의 독서에 대한 관심

우리 사회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언론이다. 독서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방송과 신문이 ‘책과 책읽기’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주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보화와 정보기술의 보급과 확산과 관련한 보도에 치중하였던 언론이 영상전자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책이 지식정보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적 현상에 주목하고, ‘책과 책 읽는 사회’에 대한 집중적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조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책과 독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이다.

### (1) 방송의 관심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계기는 방송이 책과 독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이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에서 2001년 한국방송공사창립특집으로 KBS 1TV 2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면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정보시대에 있어서 책읽기의 중요성, 책읽기를 위한 사회 제반 여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어린이 독서교육을 다루어 우리 사회 정보화와 정보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독서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KBS에서는 책과 책읽기를 주제로 하는 방송을 매주 방영하고 있어 고정적 책소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문화방송에서는 좀 더 대중적 차원에서 독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MBC에서는 2001년 말부터 ‘느낌표’라는 주말오락프로그램에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를 운영하여 도서관과 책, 책읽기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락프로그램에 인기 연예인을 등장시켜 ‘책을 읽자’는 주제를 내세운 이 프로그램은 독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도서들은 수 십 만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MBC 프로그램 ‘느낌표’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공동으로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어린이도서관 만들기운동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대시켰다.

이 외에도 교육방송에서도 2002년에 ‘도중환의 책과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책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TV 외에 라디오에서도 독서 및 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

로그래들을 제작함으로써 책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년간 KBS, MBC 를 필두로 방송에서 책과 독서를 이야기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독서를 둘러싼 사회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신문의 관심

신문의 책과 독서에 대한 보도는 1990년대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신문의 책에 대한 정보가 보다 확대된 것은 신문의 지면경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3년을 전후로 하여 신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각 신문사들은 증면과 섹션화를 통하여 기사의 양을 늘리면서 문화관련 기사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일간지의 문화면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책, 종교, 과학 관련 기사들이 점차 문화면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지면을 만들기 시작했다”<sup>14)</sup>

중앙일보가 1994년 9월 1일부터 매일 48면으로 섹션 발행을 시작하면서 섹션화가 전체 일간지로 파급되었다. 그후 문화일보가 1996년부터 출판지면을 8개면으로 섹션화하자 1999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2000년 중앙일보 등 주요일간지들이 경쟁적으로 출판지면을 확대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신문의 서평과 이에 따른 고정 독서인구가 형성되었다.<sup>15)</sup>

독자들이 책을 읽고자 할 때 주요한 정보원으로 신문의 책정보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문의 책과 독서에 대한 사회적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 신문사들도 책과 책읽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다 강화하여 이를 통해 독자들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일간지가 북섹션을 통해서 책과 독서의 주요 정보원으로 기능하여 우리 사회 책과 책읽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면, 보다 본격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한 신문사도 있다. 문화일보는 2002년에 ‘다시 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출판계와 도서관계,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신문을 통한 국민독서 캠페인을 시도하는 등 책과 책읽기의 가치를 역설하고 나섰다. 이 캠페인에서는 ‘국민독서 토론회’와 ‘책 선물 릴레이’ 등의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 붐 조성에 기여하였다. 국민일보에서도 2003년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함께 북스타트운동을 전개하여 국내 최초의 영유아 대상의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sup>16)</sup> 또한 중앙일보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KBS와 공동으로 도서관콘텐츠 확충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벌이는 등 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14) 양은경, 1990년대 한국문화연구의 형성과 권력효과 : 신진 문화연구자들의 상징권력 획득 과정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p.114.  
15) 문화관광부&문화일보, 2002 국민독서연중캠페인 ‘다시 책이다’ 자료집(2002), p.34, 김은하, 1990년대 한국 아동문학장의 지배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p.46에서 재인용.  
16) 국민일보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함께 북스타트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이 최근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매체가 책읽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 디지털 정보시대의 책과 책읽기의 가치를 주장하고, 이들 언론이 앞장서서 본격적인 책읽기운동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책과 독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정보사회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 지식기반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기술중심적으로 주장되었던 우리 사회 주요 담론들은 점차 빛을 바래고 정보사회의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전통적인 독서력에 있다는 주장이 언론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운동에 힘입어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사회는 책과 책읽기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 3) 독서관련 시민단체의 성장

독서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의 확산 그 이면에는 독서관련 시민단체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독서운동 시민단체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 단체들의 독서운동과 관련한 사회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독서열풍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 (1)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독서운동

어린이 책과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파시킨 단체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가 바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어도연)이다. 이 단체는 20여년 넘게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책을 매개로 어린이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한 활동을 살펴본은 우리사회 독서운동의 양태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전신은 서울양서협동조합이다. 이는 1978년 2월에 좋은 책을 고르고, 고른 책을 널리 읽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결성된 문화운동단체라 할 수 있다. 양서협동조합은 경영난으로 해체되고 1980년 5월 양서협동조합내의 분과조직으로 있던 어린이도서분과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도서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당시 어린이도서 분과는 1980년 5월 2일에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 권장하는 뜻으로 제1회 어린이 책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당시 어린이 책은 세계명작 중심의 외국 동화책 전집이 대부분이었고, 창작동화나 단행본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에게 좋은 우리 책을 주고 싶어도 책이 없었고, 좋은 책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회원들이 어린이 책을 직접 읽고 토론하여 좋은 책 골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출

범하게 된다. 이후 1997년 7월에는 사단법인단체로 승인 받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17)</sup>

현재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주요한 활동은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선정하고 좋은 책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도연은 전국을 순회하여 학부모가 어린이 책의 독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자녀에게 책읽어주기, 좋은 책의 기준 등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좋은 책 목록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책과 책읽기에 대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어도연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은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목록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이다. 어도연에서 만들어진 권장도서목록은 매달 발행하는 회보 ‘동화읽는어른’에 실려서 배포되는데, 이는 어린이책의 선정과 구입에 관련되는 학부모나 도서관 사서 학교교사에게 어린이 도서를 선택할 시 하나의 선택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sup>18)</sup> 어도연의 이러한 활동은 소비자에게는 좋은 책의 소비를 권장하고, 생산자 및 공급자에게는 좋은 책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 책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어도연은 현재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집단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sup>19)</sup>

한편,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 독서운동의 전국화와 대중화에 주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어도연의 지역모임인 ‘동화읽는어른모임’이라는 지역모임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동화읽는어른모임은 1993년, 안동, 시흥, 부평, 광명 등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라, 제주, 충청 등의 전국적 지역에서 110 개 모임을 운영하며 3,500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 어린이 독서문화 확산의 산실역할을 하고 있다. 동화읽는어른모임은 지역 어린이 독서문화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모여 어린이 책공부를 하며, 도서관과 공부방에서 책 읽어주기, 인형극, 빛그림 그림자극 같은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sup>20)</sup>

어도연의 활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부모들의 호응을 얻게 된 것은 수험능력시험과 논술위주의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에 힘입은 바 크다.<sup>21)</sup> 더불어

17)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childbook.org>> [인용 2004. 7. 15].

18) 어도연이 좋은 책이라고 발표하면 약 5000부가 전국 서점에 일제히 깔린다고 한다. 현재 어도연이 독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이권우, “어린이 독서문화운동의 메카 ‘어린이도서연구회,’” *BOOKPEDEM*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호(2002), p.160)

19)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선정, 배포하는 권장도서목록이 어린이 책의 소비와 공급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편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은하는 그의 박사학위논문(김은하, 1990년대 한국 아동문학 장의 지배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에서 어도연의 권장도서목록 선정 및 배포활동은 이 단체가 어린이 도서영역을 지배하는 최대권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나 어린이 독서 영역에서 어도연이 가지는 사회적 비중에 비해 권장도서목록은 그 전문성의 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0)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childbook.org>> [인용 2004. 7. 15].

21) 대입제도가 수험능력시험체제로 바뀌고 논술시험이 시행되면서 좋은 책을 읽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자 학부모들이 어도연의 독서교육과 관련한 활약상에 주목하여 이들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들이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새로운 자녀교육모형을 찾는 부모들의 관심’<sup>22)</sup>도 어도연의 독서운동을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데 일조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가 1980년 창립이후 20년 넘게 아동서적에 대한 비평활동, 권장도서목록집발간, 동화읽는어른모임의 전국적 조직의 결성과 회지발간, 어린이도서관련 각종 세미나, 어린이 독서교실 등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그 여파로 인해 어린이 책과 독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어도연은 어린이 책과 독서에 있어서 사회적 권위를 부여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 독서운동관련 시민단체로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환경의 조성과 올바른 독서교육의 확산을 주도한 어린이도서연구회는 현재, ‘어린이 책분야의 최대권력’<sup>23)</sup>으로 평가받고 있다.<sup>24)</sup>

## (2)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

2001년 결성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란 단체도 우리 사회 독서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단체로서 도서관 및 독서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개혁시민연대)에 의해 진행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캠페인운동이 계기가 되어 결성되었다. 문화개혁시민연대는 2001년 문화와 정보시대를 맞아 시민의 문화와 지식역량의 강화를 위해 출판과 도서관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의 배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문화개혁시민연대의 주도 하에 전개된 이같은 경험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출범하는 토대가 되었다. 2001년 6월 2일 문화개혁시민연대를 필두로 하여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현실 속에서 일반시민들이 개인장서를 갖추는 것 외에 책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치 않은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꾸자는 의도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도서관이야말로 시민의 지식접근권을 높이고, 지식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핵심기관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데 주

22) 김은하, 전계논문, p.63.

23) 이권우, “어린이 독서문화운동의 메카 ‘어린이도서연구회,’” *BOOKPEDEM*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호 (2002), p.160.

24) 어린이도서연구회 외에도 우리 사회 어린이 책과 책읽기문화를 꾸준히 확산해온 단체들이 많다. 예를 들어 겨레아동문학연구회([www.gyure.org](http://www.gyure.org))는 아동문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작가, 학부모, 아동문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의 모임으로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오르발원발([www.childweb.co.kr](http://www.childweb.co.kr))은 어린이 책에 대한 비평, 베스트셀러분석 등을 통해 어린이 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단체이다.

안점을 두고, 이러한 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시민의 책읽기와 지식접근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운동에는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의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도서관계 출판계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이 동참하여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 도서관 콘텐츠 실태조사, 관련법개정운동, 각종 토론회와 연구회 등의 활동을 도모하였다.

이후 이 운동단체는 보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확보하는 운동에 주력하게 된다. 2003년에는 문화방송사와 협력하여 어린이전용도서관을 확보하는 ‘기적의 도서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인 순천도서관의 개관에 이어 제천, 진해, 서귀포, 울산, 청주 등에 어린이도서관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주도한 어린이도서관운동에 힘입어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붐이 일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의 도서관건립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도서관건립운동과 더불어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Bookstart)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책읽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북스타트운동은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생후 7-9개월 된 아이에게 책이 담긴 가방을 나눠줌으로써 아기가 어릴 적부터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영아를 위한 독서프로그램이다. 영국의 버밍엄 지역 3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프로젝트는 교육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65만명 이상의 아기들이 혜택을 보았다.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북스타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는 영국의 북스타트운동을 참고하여 국민일보사와 함께 한국에서의 북스타트운동을 시도하게 된다. 우선, 2003년 4월 1일부터 서울 중랑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중랑구 보건소에 DPT 3차 예방 접종을 맞으러 오는 생후 6개월 전후의 영아에게 그림책 2권과 안내 책자, 육아용품 등이 담긴 가방을 무료로 제공하고, 보건소에 상근하는 자원봉사자가 부모에게 책 읽어주는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울 중랑구의 북스타트운동을 시발로 하여, 같은 해에 부산에서도 북스타트운동이 일어났으며, 2004년 8월에는 서울 중구, 전남 순천, 경남 마산 등에서도 북스타트운동에 돌입하게 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북스타트운동으로 인해 영아들을 위한 책읽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한국사회가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사회가 아니다’<sup>25)</sup>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책읽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만들기 운동’을 비롯하여 ‘북스타트운동’ 등은 도서관 및 독서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

25) “돈 없으면 책도 읽지 말라고?—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도정일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2003. 7. 17)

키는 획기적인 운동으로서 독서에 대한 사회적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sup>26)</sup>

이상과 같이 독서관련기관의 성장과 이들의 독서와 관련한 사회적 운동이 확대됨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가 점차적으로 뿌리내리게 된다.

### 3.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책읽기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책읽기 붐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유행보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불고 있는 우리사회의 책읽기 붐이 적박한 우리의 독서문화환경에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다양한 기관에서 주도하는 책읽기운동은 이런 점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서운동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독서 붐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쟁기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다.

수학능력시험, 논술시험,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아울러 언론과 다양한 시민단체의 독서운동에 힘입어 독서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서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도서관 및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 공공영역에서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독서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공적 영역이 시민들의 증대된 독서욕구를 채우지 못하자 그 틈을 타 사적 영역에서 거대한 독서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독서시장은 독서의 사교육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달라진 대입시험과 변화된 학교교육을 대비하려는 부모들의 열망이 독서와 관련한 사교육시장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은 독서의 가치를 왜곡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독서 사교육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사교육시장이 낳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6) 어린이도서연구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이외에도 우리 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많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문화운동을 비롯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서세물결운동, 새마을문고중앙회의 독서운동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독서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최근 우리나라 독서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주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독서관련 사교육업체를 통한 사교육의 확산

현재, 독서관련 사교육업체로는 독서운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독서관련사기업으로 변신한 한우리독서운동본부를 비롯하여, 전국독서새물결모임, 한국독서교육연구원, 중앙독서교육연구원, 까치 글짓기, 한샘아름이국어, 한마음독서교실, 해오름논술교실, 어린이문학연구원, 어린이문학연구소, 꼬마랑, 글사임당, 아이노리북, 아이북랜드, 아해세상, 그린키즈교육, 동화친구, 대교독서클럽, 흥선생교육 등 독서와 관련한 군소업체들이 우후죽순 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이 입시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단기간에 급성장하여 2002년 말 현재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의 한해 매출규모는 1조 6,400억원으로 전체 아동의 12%가 독서 사교육시장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7)</sup> 1990년대 말부터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독서시장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독서관련 사교육업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맞는 도서를 대여하고 독서지도를 해주는 아동도서대여업이 첫 번째 유형이고, 일종의 독서지도학원과 같은 가맹점사업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이다.

먼저, 아동도서대여업은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서를 대여하는 가정방문독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일정 정도의 월회비를 받으며 금액에 따라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책 방문대여업체로 아이북랜드를 들 수 있다. 아이북랜드는 2000년에 창업한 기업으로 2003년 현재 85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독서교육전문기업으로 전국에 지점망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들 지점은 지점본부의 도서선정팀이 정한 책들을 독서지도사가 직접 회원의 어린이 집에 갖다 주는 택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아동도서대여업은 2000년 이후 생겨난 독서관련 신종업종으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서대여를 통한 아이들의 독서지도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월 10,000원으로 1년에 200권의 어린이 전문서적을 배달시켜 볼 수 있습니다’<sup>28)</sup>라는 이들 업체의 구호는 아이들 책읽기를 걱정하는 부모들을 손쉽게 끌어 들일 수 있었다. ‘도서관에 빌리러 다니기 귀찮고, 서점 가서 사기도 좀 그런’<sup>29)</sup>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들 업체의 독서관련 상품은 아이들의 책읽기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독서관련 사교육업체의 두 번째 유형은 일종의 가맹점과 같은 독서지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영리를 도모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가 있다. 이 단체는 1989년에 독서운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대표적인 독서관련사기업으로

27) 김은하, 전계논문, pp.38-39.

28) 아이북랜드 광고, 한겨레신문(2000. 3. 11.)

29) “변화의 시대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어린이 책 유통환경의 변화와 영업자의 역할,” *BOOKPEDEM*, 1호(2001), p.116.

변질되었다. 이 기관은 독서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한우리독서문화원 어린이 독서클럽이라는 이름의 독서지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독서관련 사기업으로서 전국적인 세를 확보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전국 320여 개의 독서문화원 혹은 어린이독서클럽을 두고 있으며, 자체 양성한 3천여 명의 독서지도사가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0)</sup> 현재 이러한 독서학원은 아이들의 독서과외활동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 2) 독서지도사 양성에 따른 사교육의 확산

독서관련 사기업체의 성장과 더불어 독서지도사의 양성과 보급에 따라 독서의 사교육화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서지도사의 자격을 국가에서 부여하고 관리하는 국가자격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민간자격에 머물러 있다. 지난 1992년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민간자격 시험을 실시한 이후 2003년 현재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서지도사가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의 도입 이후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독서를 지도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서지도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공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인력양성으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사교육기관에서 “공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형국으로 1990년대 초부터 ‘독서지도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sup>31)</sup>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독서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독서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그 범주가 네 가지 정도로 나뉜다. 첫째, 대학교의 부속기관인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이다. 현재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부산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강남대, 카톨릭대, 국민대, 배재대, 신라대, 부경대, 인제대 등 많은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독서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 언론사나 백화점 부설의 문화센터이다. 셋째, 민간단체에서 양성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이다. 넷째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각 지역의 YWCA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구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택 연수의 성격을 띤 사이버독서지도사 양성 과정도 개설되는 등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은 보다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독서지도사과정은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를 비롯한 여성들이나 대학진학을 위한 자녀독

30)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홈페이지, <<http://www.hanuribook.or.kr>> [인용 2004. 7. 15].

31) 이경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13.

서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다음의 신문기사에서도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대입시험에 논술고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로 생긴 직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하는 「독서지도사」가 있다.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4~6명씩 소그룹을 만들어 토론과 글쓰기 독서를 지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 입시가 사고력 위주로 변하면서 독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져 자녀독서지도를 위해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많이 신청한다.<sup>32)</sup>

주부들사이에 어린이 독서지도사가 신종부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주일에 2회수업, 학년에 따라 시간과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고 보통 1인당 6만원씩을 한달 수업료로 받는다. 4~5명 정도의 2그룹을 지도했을 때는 50만~60만원이 보장된다.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독서지도는 자녀의 독서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고학력 주부의 부업으로 부각되면서 독서지도사과정은 신문에 단골로 소개되는 아이템이 되었다. 이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고학력 여성 인력들이 대거 독서지도사양성과정에 몰리게 된다.

한편, 다양한 사회기관에 의해 양성된 독서지도사들은 직접 독서논술교실이나 글짓기교실과 같은 사설학원을 운영하거나 독서문화원 지도교사, 어린이 독서클럽 지도교사, 학원강사, 방과 후 지도교사, 각종 문화센터 지도강사, 프리랜서, 대학의 사회교육원 강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독서관련 사교육업체와 민간기관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양성된 독서지도사들은 우리 사회의 독서교육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헌을 하였지만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의 사교육 담당인력을 양산하고,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을 확대하는 등 독서의 사교육화를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3) 독서 사교육화의 사회적 부작용

독서관련 사교육업체를 비롯한 사교육에서 주도하는 독서교육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32) “초·중등학생 대상 독서지도사 인기/사회단체서 양성,” 조선일보(1997. 11. 24)

33) “주부 신종 부업 ‘독서지도사,’” 경향신문(1997. 7. 17)



## (1) 독서 가치의 왜곡

먼저, 사교육에서 주도하는 독서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독서의 가치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독서교육이란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생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sup>34)</sup> 그러나 사교육에서는 독서라는 상품을 학습성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 이름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서마저도 수능능력시험과 대학진학을 위한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독서 왜곡에 대한 책임은 독서관련 사교육기관에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는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을 낳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어 학부모나 학생들의 좋은 대학진학에 대한 염원이 독서의 사교육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들의 좋은 대학에 대한 염원이 아이들을 독서학원으로 보내게 하고, 독서과외를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사교육업체들은 ‘독서’라는 ‘상품’으로 사교육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독서관련 사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수능능력시험이나 대입논술 대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독서프로그램에서는 책읽기가 책읽기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독해력 향상, 글짓기능력 훈련 차원으로 왜곡돼 있다. 즐겁고 자유로워야 할 아이의 독서에까지 어른들의 시험, 사교육 논리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란 또 다른 공부의 과정일 뿐이며, 사설기관에서 받는 아이들의 독서수업은 수학, 영어 이외의 또 다른 과외과목으로 존재할 뿐이다. 결국 아이들은 책읽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시험을 위한 책읽기, 대학진학을 위한 책읽기를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강요된 책읽기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상력 호기심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앗아 갈 뿐만 아니라 책읽기에 대한 최소한의 즐거움마저 거세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사교육기관의 독서 가치에 대한 왜곡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독서능력검정시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독서능력검정시험은 2004년 4월,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이라는 민간기관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 요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대상 책을 선정해 이를 검정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여 등급으로 매긴다는 것이다.<sup>35)</sup>

이에 어린이도서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도서관협회, 민족문화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17개 문화 시민단체들은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독서능력검정시

34) 조월례, “아이들을 망치는 독서능력검정시험을 반대한다,” 동화읽는어른, 139호(2004. 4), p.5.

35) 독서능력검정시험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두 10단계의 급수가 설정되어 각 단계별로 40권 안팎의 선정도서에 대해 객관식 90%, 주관식 10%의 문제를 풀어 70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서를 주는 방식으로, 응시료는 1만5000부터 5만원이다.

협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즐거운 활동이어야 할 독서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독서능력을 획일화하는 동시에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며, 동시에 이 시험은 “독서교육이란 명목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상업화를 조장하게 될 것”<sup>36)</sup>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독서능력시험의 실시는 독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독서의 상품화를 조장하며, 독서가 시험목적으로 행해짐으로써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차단하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단이 매우 크다. 독서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독서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2) 독서지도사의 양산으로 인한 독서의 사교육화 확산

독서관련 사교육기관의 확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두 번째 문제는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독서지도사의 양산과 이로 인해 독서의 사교육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설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대학의 부설기관 및 신문사, 백화점의 문화센터 등의 독서지도사과정을 통해 배출된 독서지도사의 수는 2003년 현재 2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독서지도사라는 직업의 경제적인 소득이 부각되면서 독서지도사로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독서지도사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보통 1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이다. 6개월 내지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하면 일종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원하는 사람이면 쉽게 획득할 수 있기에 누구나 독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어 독서지도사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이란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자질과 자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독서지도사의 자격을 검증하는 공인된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이 자격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독서지도사들의 손에 의해 장악이 되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이렇게 양산되는 독서지도사의 대부분이 독후감쓰기나 글짓기, 논술지도 등을 통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독서의 사교육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들 독서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 또한 우리 사회 독서교육을 책임질 독서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 대비한 ‘논술기술자’를 양산하는”<sup>37)</sup> 사교육자 양성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현재 독서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과 그곳에서 배출된 독서지도사는 독서교육의 상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36)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 성명서 (2004. 4. 1.)

37) 고수진, 우리나라 독서교육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7), p.97.

### (3) 독서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초래

마지막으로 사설교육기관의 독서교육 확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은 독서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현재 부모들의 아이들 책읽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입시와 논술, 제7차 교육과정의 개편 등이 자녀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다 고양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를 차치하더라도 책읽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녀의 책읽기는 부모들의 주요한 관심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독서는 부모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통 아이의 독서교육은 독서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을 둘러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독서의 시작과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과 수준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sup>38)</sup> 이렇게 볼 때 자녀독서에 열의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은 독서교육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독서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게 된다. 이른바 독서교육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교육 및 자녀독서교육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고 있고, 이 같은 열의는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받게 하는 이른바 '독서과의'라는 새로운 열풍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현재 사교육에서 독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들의 자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설독서교육기관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모의 자녀독서에 대한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독서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여 이른바 '독서빈곤'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데 있다.

독서교육이 사교육으로 남아 있는 한, 아이들의 독서가 개별 가정의 부담과 몫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책을 읽는 행위는 매우 사적인 행위이지만 책에 다가가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독서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만 독서교육 기회의 불균형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38) 강영아,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와 발전전략(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00), p.25.

## 4. 독서의 사교육화에 대한 대응방안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불고 있는 독서열풍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러한 독서열풍의 분위기에 힘입어 확산된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과 그것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독서의 사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강화

독서의 사교육화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결방안은 독서의 공적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서에 있어 공적영역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영역과 학교교육의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차별없이 정보와 지식과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공공영역으로 존재한다. 현재 사설교육기관에서 초래하는 독서가치에 대한 왜곡과 독서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은 매우 오래되었다. 특히 어린이대상의 독서교육은 197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는 ‘어린이독서회’<sup>39)</sup>란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1976년 이후부터 ‘독서교실’이란 명칭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확산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기에는 공공도서관의 수나 제반 여건이 현실적으로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지원을 통해서 누구나 차별없이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여건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이 같은 방안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독서교육의 사교육화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독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독서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교육이 단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라 독서교육의 공적 기반을 뿌

39) 국립중앙도서관은 당시 독서계층을 저학년(1, 2학년), 중학년(3, 4학년), 고학년(5, 6학년) 등 3개반으로 편성하여 각 반별로 수준에 알맞은 우량아동독서를 선정하여 읽히고, 담당지도사서의 개별지도와 집단 지도로 독서의 생활화는 물론 독서능력을 개발하는 등의 독서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진행되었던 독서교육의 내용은 주로 독서태도 및 방법, 양서선택의 요령, 감상문 작성법, 감상화 그리는 법, 개별지도, 각종 레크리에이션 지도, 도서관이용법 등이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립공공도서관약사 (‘70-’80년대)자료-독서교실에 관한 건 참조).

리내리게 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의 개선과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학교교육 및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 개선

독서의 사교육화를 막는 가장 시급한 방안은 공교육의 기본영역인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을 올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지난 40여 년간 입시위주로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독서’가 도외시되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보다 부각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교교육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독서에 대한 인식과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학력고사로 대변되는 기존의 대학입시제도에서는 입시준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만을 거의 유일한 독서의 대상으로 삼았었지만 새로운 입시제도의 채택 이후로 교과서이외의 다양한 글들을 읽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바람직한 변화와는 달리 현재 학교에서는 독서마저도 입시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나마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 1996년 3월부터 국어교과의 과정보다 필수과목으로 ‘독서’과목을 신설하였고, 이후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2002년 3월부터 국어교과의 심화선택과목으로 ‘독서’과목을 신설하는”<sup>41)</sup> 등 학교교육에서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선학교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문화풍토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교육풍토, 입시제도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학교독서교육의 정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바로 학교도서관이 그 답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도서관 또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학교의 독서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더불어 독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사서교사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 수는 2004년 현재 262명으로 전국 10,503개 학교 중 2.49%만이 배치되어 있어 매우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sup>42)</sup>

40) 교수진, 전계논문, p.101.

41) 변우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교육의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권 1호(2003, 3), p.3.

4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토론회자료집) (2004. 7. 7., 국회도서관 강당)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독서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인만큼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43)</sup> 공교육인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사교육에서 독서의 팽창이 수그러질 수 있을 것이다.

### 3)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문헌정보학과의 독서 관련 교육의 강화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됨과 더불어 독서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게 됨으로써 각종 독서지도사과정이 생겨났으나 현재 이들 과정에서 양성되는 독서지도사들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뿐만 아니라 상업성에 편중된 독서지도사과정의 난립하고 이들 과정에서 배출된 독서지도사들은 독서의 사교육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올바른 독서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제대로 된 독서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국가정책과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사서가 독서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독서교육을 오랫동안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독서교육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나 정작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은 사서의 전적인 몫이 아니라 외부 강사의 일로 간주되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sup>44)</sup> 이러한 상황에 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사서가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서가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도서관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된다. 도서관현장과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가 전문성확보를 위해 재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그러한 사서를 배출하는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전문적 인력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sup>45)</sup> 이와 같은 독서교육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자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공적 영역에서의 독서교육의 전문성

43) 다행스럽게도 최근 교육부는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을 내놓아 학교 및 도서관현장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 계획은 2003년부터 매년 600억씩 5년동안 3000억원을 들여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올 학교도서관리모델링 예산의 300억 중 100억원을 삭감함으로써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의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44)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육의 경우 사서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강사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45) 실제, 도서관에서 어린이 봉사나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의 경우 사실교육기관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와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독서지도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헌정보학교육과정이나 사서재교육과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5. 결 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이 글에서 현재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독서열풍을 살펴보고, 이러한 독서열풍에 힘입어 확산된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을 조명해보았다. 이를 통해 독서의 사교육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독서는 사적인 행위이지만 독서에 접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인 일이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지적기반을 형성하는 독서행위를 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상업적인 기관에게 맡겨놓아서는 곤란하다. 독서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이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국민의 독서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교육에서의 독서교육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고, 또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독서교육의 실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공교육으로서의 독서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사교육시장의 독서교육이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서의 사교육화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